

주가	환율	금리
+2.96	+1.00	4.60%
1,354.26	955.40원	(3년만기 국고채)
(코스피지수)	(원/달러)	
코스닥지수	578.25	(+1.22)
다우(17일)	11,950.02	(-30.58)
나스닥(17일)	2,344.95	(-18.89)
넷케이	16,653.00	(+41.41)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8.64엔	(+2.15)
유로 달러 환율	1.2549달러	(+0.10)
3년만기 회사채	4.91%	(보합)
클레리	4.47%	(-0.01)

광주 9월중 수출 9억달러

자동차·반도체 호조·전선동기대비 65%↑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세관(세관장 오태영)이 9월중 광주지역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64.5%(전국 평균 21.3%) 증가한 9억달러, 수입은 0.6% 증가한 3억6천8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5천100만달러 증가한 5억3천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주력 수출품목군인 승용차(수출비중 32.8%)와 반도체(수출비중 24.6%)가 각각 325.9%와 52.7%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지역 수출은 17억3천6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4% 증가했고, 수입은 26억7천300만달러로 16.3%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5천600만달러 늘어난 9억3천700만달러 적자였다.

화공품(7억2천500만달러·41.8%), 철강 및 금속제품(3억7천500만달러·21.6%) 등이 수출을 주도했고 원유(13억5천200만달러·50.6%), 나프타(4억9천만달러·18.4%) 등 원자재 수입이 늘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화 한통화로 예약서 발권까지

아시아나, 23일부터 전담데스크 운영

아시아나항공은 23일부터 전자항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예약센터 내에 국제선 전자항공권 전담데스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전화 한 통으로 항공권 예약과 발권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전자항공권 전담데스크를 운영하게 된 것은 전자항공권의 수요가 큰 쪽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의 경우 전자항공권 이용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고, 국제선도 올해 1월 20%에서 8월 5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전자항공권을 이용하면 종이항공권의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시아나 예약센터(1588-8000)로 전화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강진문화복지타운 '업체선정 의혹' 법정서 밝힌다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본보 8월11일, 10월9일자 보도)을 일으켰던 강진문화복지타운 조성사업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N종합개발 등으로 구성된 (가칭)선진문화복지주식회사는 17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술, 가격 및 가점 평가를 통해 1순위를 차지한 N종합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2순위를 대상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는 취소해야 한다"며 강진군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칭)선진문화복지주식회사는 소장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에 고시부터 평가 및 협상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위임했다면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시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됐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2순위 협상대상자에게 우선협상자 자격을 부여

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가칭)선진문화복지주식회사는 또 사업신청에 5개사 이상 참여를 예측했으나 2개사만이 참석, 채점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황주홍 군수의 평가 결과 반복 사유에 대해 "2개사만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사업계획서 제출일까지 40여일 동안 채점방식에 대한 변경고시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끝난 후 통보된 평가표를 문제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장에서는 또 "황 군수는 '억울한 일이 될 생기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같은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는 유선상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는 구두 통

국책연구기관 평가 1순위 업체 行訴 제기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감사원서도 조사

보를 받은 후 문서로 통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협상대상자가 반복돼버린 쪽이 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선진문화복지주식회사는 지난 10일 감사원에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우선협상대상자 부당 반복에 대한 감사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초 조사를 거쳐 ▲직접 조사 할지 ▲해당 부처에 조사를 위탁할지 ▲또는 해당 부처로 민원을 이송할지 등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한 데는 강진군의 행정행위가 일관성을 잃은 때문이라는 지적이 보편적이다. 강진군이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

센터(PIMAC)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을 의뢰해 놓고도 이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의뢰하고 비전문기관인 시민단체에 자문을 부탁하는 등 9개월여 동안 행정력을 남비, 투명성과 공정성에서의 심을 받게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 사업자 모집을 고시하고 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N종합개발과 N건설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평가용역을 의뢰, N종합개발이 적격 1순위, N건설이 적격 2순위라는 응역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강진군은 이같은 국책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고도 적격 2순위 업체인 N건설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미루다가 지난 2일 아예 평가 결과를 뒤집고 N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대 '베라크루즈' 신차 발표회

현대자동차는 1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럭셔리 유틸리티 차량인 'LUV 베라크루즈' 신차발표회를 가졌다. 이 차는 현대가 독자개발한 2400cc V6 3.0 엔진을 장착하고 1등급 연비를 실현했다. 6개 차종의 판매가격은 3천180만~4천140만원으로 나뉜다. 왼쪽부터 박홍석 KBC광주방송시장, 이광선 현대차 부사장, 최형섭 광주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진영 광주일보시장, 최현 현대차광주본부장.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지난해 국내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는 종업원 1인당 108만3천73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엑스퍼트컨설팅이 국내기업 및 공공부문의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제개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기업 종업원 교육비는 1인당 108만3천739원으로 2004년에 비해 31.7%(26만1천원) 늘었다.

이같은 국내기업 1인당 교육훈련비는 미국기업교육협회(ASTD)가 선

기업 1명당 교육비

108만원

정한 미국의 기업교육 베스트 그룹의 평균인 97만4천378만원에 비해 11.2%나 높은 액수다.

또한 지난해 국내기업 및 공공부문의 교육훈련비 투자는 매출액의 0.35%, 인건비 총액의 3.65%로 2004년 매출액 대비 0.22%와 총인건비 대비 1.95%에 비하면 각각 59%와 87% 정도 증가했다.

국내기업 직원 1인당 연간 교육 시간은 77시간으로 2004년 평균 62시간에 비해 15시간 늘었고, 교육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종업원수는 2004년 평균 418명에서 326명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신용대출 금리 국민銀 5.32% 최저

HSBC 평균 10.57%

광주은행은 7.30%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가장 싼 은행은 국민은행이고 가장 비싼 은행은 HSBC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국내은행 가운데 비교적 금리가 높은 편인 7%대로 국민은행에 비해서는 2%포인트 가량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6월 말까지 월별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를 단순평균하는 방식으로 은행별 신용대출 금리를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5.32%로 가장 낮았으며 우리은행 5.68%, 신한은행(통합이전) 5.69%, 농협 5.83%, 하나은행이 5.84%였다. /장필수기자 bngy@kwangju.co.kr

■은행별 신용대출 금리 (단위:연·%)

은행	금리	은행	금리
국민	5.32	수협	6.64
우리	5.68	광주	7.30
신한	5.69	기업	7.49
농협	5.83	SC제일	7.99
하나	5.84	한국씨티	9.34
외환	6.09	HSBC	10.57

곳은 광주은행(7.30%), 제주은행(8.31%), SC제일은행(7.99%), 기업은행(7.49%) 등으로 비교적 비싼 편에 속했다.

반대로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비싼 은행은 외국계로 HSBC은행이 평균 10.57%로 금리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씨티은행도 평균 9.34%를 기록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대출도 신용대출에 포함되는 등 은행별 산출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ngy@kwangju.co.kr

광주신세계 3분기 영업이익 42억 4천만원

광주신세계는 18일 지난 3·4분기에 전분기보다 29.6% 줄어든 42억4천2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광주신세계의 3·4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대비로도 9.7% 감소한 것이다. 매출액은 49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7.1% 늘었고 경상이익은 38억9천만원으로 36.2% 감소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7월4일 이마트 오픈으로 매출액

은 크게 늘었으나 이로 인한 판매촉진비 증가와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누리투자증권은 이날 광주신세계에 대해 이마트 개점과 백화점 리뉴얼로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8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장필수기자 bngy@kwangju.co.kr

제주도 전자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특별호흡민되는게 어땠나?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여행

2박3일 74,000 원

1박2일 패키지 64,000원
2박3일 패키지 74,000원
3박4일 패키지 104,000원

064-744-1109

www.ISSEI.co.kr T. 124-1233

더 좋은 향토음식, 맛고을 영동!

마사이족 워킹슈즈

스포츠화 157,000원
레저화(신사화) 197,000원

광주대리점